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낮 11시에 수요일예배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사순절 생활을 돕기 위해 ‘사순절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날 연휴 관계로 점심식사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속회 개학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12일) 오전 11시 교회에서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참회의 기도를 합시다.

1부 예배	신 26:1-11 / 시 91:9-16 롬 10:8b-13 / 눅 4:1-13	2부 예배	미정
-------	--	-------	----

오늘 식당 봉사 : (없음)
 다음 주 식당봉사 : 고숙이 오송경 이준립 한양미 정은선 한선희 유상진 황현성
 오늘설거지봉사 : (없음)
 다음주설거지봉사 : 2여선교회 (61-65세)
 커피 판매 봉사 : (없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님의
오
묘
상
의
소
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변화주일 】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악으로 가득 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완전히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 깊은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족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먼 길을 오가는 이들의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갈5:24,25 인도자
 ♣ 교 독 문 74. 마태복음 5장 다 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묵회기도 김재흥 목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80.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다 함께
 ♣ 성경봉독 눅 3:21-22 김광일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대
 말 씀 하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신진식 전도사
 거둬기도 다 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요한 원은이 공종철 구자경 광상준 최경미 구재원 권미정 김나름 김미향
 김수진 김영희 김인걸 문영혜 김재홍 최희영 김정진 김해정 김지현 남명진
 김애정 류건형 이주은 마재국 손의라 민지회 박규석 박경선 박범희 박미영
 박상규 신연화 박상욱 박숙미 방문성 박해경 방민배 삼순배 재경이 수정현
 서수진 서원금 서정순 송형운 하미림 안보혜 안정숙 안종일 정현주 오숙현
 오자영 오재형 임고운 왕수명 유상진 유은정 유중희 이계선 이소순 이동천
 이민범 공재량 이성범 권현숙 이승동 백혜숙 이영현 이은실 이은주 이증자
 임서영 정복순 정연희 정완수 김재광 정원석 김현영 정재기 조경자 주경진
 이윤정 최숙 최옥분 최윤화 최형균 강경화 김추현 이은상 한상익 오정영
 허성호 진은혜 허재희 허준호 홍복선 홍소형 홍순구 안홍숙 황현성 이

감사헌금

김영호 김정근 김해선 박옥순 박재영 이현정 임설희 무명13

생일감사헌금

강금분 이왕준 송상경 이태양

녹색꿈헌금

김정훈 무명2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예루살렘	박성희	섬	청 파1속	김재흥	섬
안 디 옥	최경미		청 파2속	송형운	
가 나 안	장영숙		청 파3속	하현철	
베 다 니	박홍재		청 파4속	김정민	
시 온	권미숙		청 파5속	장영숙	
에 베 소	백혜숙		청 파6속	신진식	
빌 립 보	곽권희		청 파7속	김재환	
가버나움	안홍숙		청 파8속	이범석	
나 사 렛	김경혜		청 파9속	김인걸	
			청 파10속	장영숙	

사순절 기도 시

또 다시 당신 앞에 해마다 이맘때쯤/ 당신께 바치는 저의 기도가
그리 놀랍고 새로운 것이 아님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의 얼음도 풀리는 봄의 강변에서/ 당신께 드리는 저의 편지가
또다시 부끄러운 죄의 고백서임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살아 있는 거울 앞에 서듯 당신 앞에 서면/ 얼룩진 얼굴의 내가 보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저의 말도/ 어느새 낡은 구두 뒤축처럼 닳고 닳아
자꾸 되풀이할 염치도 없지만/
아직도 이 말 없이는
당신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소서/
주님!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고/ 다급할 때만 당신을 불렀음을
여전히 게으르고 냉담했고/ 기분에 따라 행동했음을/
여전히 저에겐 관대했고 이웃에겐 인식했음을
여전히 불평과 편견이 심했고/ 쉽게 남을 판단하고 미워했음을/
여전히 참을성없이 행동했고/ 절제없이 살았음을 여전히 말만 앞세운
이상론자였고 결과 속이 다른 위선자였음을 용서하소서/
주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셨습니다
이 사십 일만이라도/ 거울 속의 저를 깊이 성찰하며
깨어 사는 수련생이 되게 하소서
이 사십 일만이라도 저의 뜻에 눈을 감고/ 당신 뜻에 눈을 뜨게 하소서

- 이해인, '사순절의 기도 시' 중에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의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397. 주 사랑 안에 살면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일상을 뚫고 우리를 찾아 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다함께:	아멘. 주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김재흥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섬	낮 집회 / 설교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이범석 목사	공동기도	이용현 선생
	2부	김기석 목사	김재흥 목사	최경미 권사

2월	영접위원	김인걸 박범희 박석희 권미숙 성귀옥 박미영 이명희
	헌금위원	김정민 백혜숙

교회 절기 안내

재의 수요일과 사순절

재의 수요일 Ash Wednesday (올해는 2월 10일)

사순절 첫날로 사순 제1주일 전(前) 수요일입니다. 이날, 참회의 상징으로 이마나 손등에 재로 십자가를 긋습니다. 이 재는 지난해 고난주간에 사용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 만듭니다. 목사나 사제는 교우들에게 재로 십자가를 그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흠에서 왔으니 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재는 철저한 회개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기도 드렸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도울 수 있는 기도문을 하나 소개합니다. 재의 수요일 중 조용한 시간을 마련하시고 소리 내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흠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먼지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한 줌 재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흠에서 나왔습니다.

육체와 물질을 귀히 여기게 하소서.

우리가 흠에서 나왔습니다.

이 땅의 삶을 귀히 여기게 하소서.

우리가 흠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흠에서 난 동료 피조물을 귀히 여기게 하소서.

흠에서 나와 흠으로 돌아가니

교만을 버리게 하소서.

흠에서 나와 흠으로 돌아가니

탐욕을 버리게 하소서.

흠에서 나와 흠으로 돌아가니

분노를 버리게 하소서.

우리가 단지 흠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생명을 우리 코에 붙여넣어 주소서.

우리가 단지 흠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내신 숨을 제게도 붙여주소서.

우리가 단지 흠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흠과 생명, 땅과 하늘이 어우러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신비와 저항’ 재의 수요일 교독문 중에서)

사순절(四旬節) Lent (올해는 2월 10일부터 3월 26일까지)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모세와 엘리야, 특히 예수님의 광야 단식 일수에서 유래했고, 사순절이란 부활절 전까지 여섯 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이 시기를 매우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음식은 하루에 한 끼, 저녁만 먹되 채소와 생선과 달걀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단식은 완화되었고, 사순절을 단식기간으로 지키기보다는 구제와 경건훈련의 기간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성서에서 40이란 숫자는 고난과 더불어 변화를 상징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교회에서 나누어 드린 사순절 달력에 빈곳을 채워 하루하루 함께 성경묵상도 하고 신앙실천도 해보세요.